2027년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-연극 공모 결과 공고

예비 청년예술인 작품발표 및 현장연계 지원사업 <2027 서울 커넥트스테이지> 사업 연극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
이번 공모에는 총 34건이 지원하였으며, 심의위원 서류검토 및 토론심의를 통해 총 7건이 선정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-연극 최종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다시 한번 <2027 서울 커넥트스테이지>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의 예술가로서의 여정 속에서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

▢ 최종 선정자 명단 (관리번호순)

연번	신청자명	사업명
1	김가현	또 여기인가(중앙대학교)
2	고윤아	아니근데있짠아(청주대학교)
3	김혜진	펜스 너머로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해(청강문화산업대학교)
4	이해솔	57번 버스(서울예술대학교)
5	이태욱	오신 날(동양대학교)
6	장우혁	인간 설계도(한양대학교)
7	최원영	그리고 남겨진 것들(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)

▢ 심의위원 명단

연 번	이 름	분 야	현직/약력
1	문삼화	연극 연출	어처구니 프로젝트 상임연출,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
2	윤혜숙	연극 연출	래빗홀씨어터 대표
3	정범철	연극 연출/극작	극발전소 301 대표

▢ 심의총평

<2027 서울 커넥트스테이지> 연극분야에는 예비 청년예술인의 도전적이고 신선한 작품 다수가 눈에 띄었다. "지금, 여기, 왜"에 관련된 젊은 청년들의 고민을 가늠할 수 있었으며, 당장의 현실에만 급급하지 않고 존재론적 구조적 질문에 닿아있는 작품들도 많아서 흥미로웠다. 내용과 형식 면에서 참신한 작품들도 많았다.

심의에서는 프로젝트의 우수성, 실행 가능성, 기대효과 및 성장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. 기 공연작의 경우 이번 <서울 커넥트스테이지>를 통해 수정 보완하며 완성도를 더 높이고자 하는 프로젝트가, 공연된 적이 없는 신작의 경우는 작품 개발의 방향이 명확한 프로젝트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. 다만 의도와 기획은 참신하나 계획 및 구성 등이 미비하여 완성도를 담보할 수 없는 프로젝트들도 있어 아쉬움을 느꼈다.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보여줄 수 있도록 보완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다. 프로젝트 이후 활동 계획이 구체적인 팀들도 많아 앞으로의 꾸준한 활동이 기대되었다.

전반적으로 적극성과 성의가 느껴지는 프로젝트가 다수였다. 예비 청년예술인과 현장을 연결하는 '커넥트'의 역할을 목표로 하는 본 사업이 졸업 이후에도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, 젊은 예비 연극인들의 앞날을 응원한다.

심의위원 문삼화, 윤혜숙, 정범철 (가나다 순)

▢ 이의신청 제도 운영

○ 심의 절차 또는 심의위원의 의결 과정 중 심의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, 지원신청자(단체) 본인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

※ 단 이의신청 시에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근거를 증빙자료로 첨부해야 함

○ 이의신청 대상

· 심의절차 중 행정적으로 심각한 오류가 발생되어 잘못된 결과가 발생한 경우

·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의 이해관계, 금품향응 수수, 담합, 위계폭력 등 불공정한 심의를 한 것이 드러난 경우

· 기타 심의과정 및 결과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업무처리가 발생한 경우

※ 예술적 수월성에 기반한 이의제기는 가치판단 영역이므로 본 이의신청 대상(범위)에 해당되지 않음

▢ 향후 일정

○ 선정 포기 기한: 11월 3일(화) ※개별 연락 및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포기 신청
○ 공연 준비 및 극장답사: 2026년 11월~2027년 1월
○ 공연장 기술 협의(스텝회의): 2027년 1월~(공연일정에 따라 순차 진행 예정)
○ 공연 발표: 2026년 1월 29일(금) ~ 3월 28일(일) 중

▢ 문 의 처: 서울연극창작센터 운영사무실(02-758-1603, stcc2024@sfac.or.kr)